

용기를 주는 글에 대하여

샌드라 하딩(Sandra Harding)의 페미니스트 인식론에 대한 글¹을 처음 읽은 건 2013년 1월이었다. 여러 방면의 폐허들을 응시하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때였다. 그때 한 친구가 여성학 이론사를 공부해보자고 제안했고 여성학과 대학원생 선배 한 명을 길잡이 삼아 커리큘럼을 짰는데, 가장 먼저 이 책을 읽었다. 책을 읽는 경험은 그 전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던 여성학자 정희진의 말에 동의한다. 이 글을 읽고 충격받았던 그때의 시간과 장소, 함께 나눴던 대화를 잊을 수 없다. 페미니즘을 만난 일이 처음 안경을 쓰고 시력교정을 할 때처럼 세상이 명료해진 느낌을 주었다면, 하딩의 글은 시간이 지나 렌즈의 도수를 적절히 올려준 것 같았다. 지금 다시 읽어봐도 모든 부분이 사무친다. 물론 90년대에 제안된 샌드라 하딩의 입장론은 ‘여성’ 범주와 관련해 오늘날 여러 논쟁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짧은 글이 당시 내게 ‘나의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그 점을 얘기하고 싶다.

지금 나에게는 세 개의 대외적인 역할이 있다. 그것들은 대학원생, 활동가, 정치인이다. 본격 공부를 하겠다고 대학원에 와서도 활동가의 삶을 놓지 못했고, 심지어 여러 사람의 우려 속에 정당 활동도 시작했다. 당직을 맡아 임기를 시작한 후부터 지난 두 달을 돌아보면 도전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읽은 샌드라 하딩의 글은 소위 초심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매일 어둠을 붙들고 잠들면서도 더 이상 못된 기억이 침투하지 못할 만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때의 마음.

이 글을 읽으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깨닫는 점이 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여겨왔던 지식 자체가 어떤 관점(perspective), 어떤 입장(standpoint)을 배제하며 생산된 것인지 묻게 되었다. “사심 없는 지식”이란 불가능하다. 왜 여성 학자들의 문제 제기가 부차적으로 취급되거나 소위 정통 계보(canon)을 잇는 자리에 위치하지 못하는지, 학부에서 다양한 학과 수업들을 들을 때부터 궁금했던 점이 단번에 이해됐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매일 일상적 공간에서 대화하고, 공론장에 의견을 내고자 하는 나와 나의 여성 친구들의 자기검열 역사만 봐도 그렇다. 혐오발화가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얼굴과 성별을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담은 짧은 글을 게시하는 건 더욱 어렵다. 지식생산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는 여유,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기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남성에게만 해당된다. 나의 경우 동등한 동료라고 생각했던 남성에게 “객관적으로 말해봐.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네가 못 알아듣게 얘기하니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나의 말하기 방식을 점점 신뢰하지 못하다가, 결국 나의 판단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경험은 한동안 치유의 시간을 필요로 할 정도였다.

공부하는 여성들, 즉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여성들이 겪는 자아분열이 하딩에게는 이런 물음으로 요약된다. “여성들이 만든 주장이나, 페미니스트 관심사에 의해 강력히 유발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만든 주장이, ‘의견’이나 어쩌면 심지어 ‘이데올로기’라는 용어 대신, 정말로 ‘지식’이라는 용어를 쓸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연구자가 연구질문을 특별한 사회집단의 삶에서 취할 때는, 특히 그 집단이 여성들일 경우에는, 그 결과는 주로 편견이 아닐까?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그 정치성에 의해 페미니즘의 주장은 편향적이 되는 것이 아닐까? 남성들이 여성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때, 도대체 왜 여성들의 주장이 남성들의 주장보다 선호할 만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 구구절절 공감이다. 하지만 한 가지 곱씹어볼 만한 것은 정치성 때문에 편향적이 되냐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이지 않은 지식이 있는가?

‘삼중의 실천행위’로서 페미니즘은 페미니스트 인식론과, 대항지식으로서 여성학, 그리고 실천으로 구성된다고 한다.² 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 설명이 지식과 정치 사이의 뗄 수 없는 관계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다. 둘 다 본질적으로 ‘문제제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누가, 무엇을 주요한 질문으로 설정하는가. 그리고 이에 응답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딩은 ‘강한 객관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객관성, 다른 말로 ‘정치적 중립’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그리고 이러한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더 폭넓게 공유될 수 있는 토대는 투쟁을 통해 얻어진다고 말한다.

두 번째로, 여성들 각각의 목소리를 듣는 건 중요하지만, “경험 자체도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경험 자체가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주체가 하는 경험이라 해서 곧장 여성주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여성의 경험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건가? 그것은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 소수자들에게 의한 온갖 혐오발화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위치는 고정된 것인가? 하딩은 페미니스트 ‘입장’은 단순히 “자신의 눈을 뜨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관점’과 다르며, “투쟁의 결과로 쟁취해야 하는 업적”이라 말한다. 동시에 하딩은 페미니스트 입장론과 경험론은 각각 서로 다른 청중에게 호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페미니스트 정치학은 이 둘을 배태할 수 있는 선결조건, 즉 ‘민주적인 참여 정치’의 다른 말이 아닐까.

이 텍스트에 힘입어 나는 내 삶에서 걸어 올려진 질문들을 가지고 운동을 선택했다. 그것이 기본소득 운동이었던 이유는, 페미니스트 정치학자 캐롤 페이트만의 ‘여성의 경제적 시민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이라는 주장에 꽂혔기 때문이다. 당시 나의 전공이 경제학이었던 탓에 여성주의 경제학과 어떻게 좀 연결해보고 싶기도 했다(경제학은 한숨 밖에 안 나올 만큼 초남성중심적인 학문이다). 페미니스트 ‘관점’을 넘어 ‘입장’을 갖겠다는 다짐은 당시의 나로 하여금 남성 선배들이 내리는 정세판단, 운동전략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했다. 심지어 페미니즘 ‘이론’에 정통하여 그 지식의 양이 압도적인 남성 선배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었다. (남성들로부터) 아무런 비판도 받지 않을 만큼 완전무결한 운동적 논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시작해도 괜찮다는 것. 그들이 ‘의미 있는 저항’으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 * *

통치가 작용하는 사회 곳곳 권력을 가진 자리에 누가 있는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구성으로 유지되어 왔는가를 간단하게는 성비부터 수치화해서 드러내 보고 싶다. 대학이라는 조직을 보자.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여성이 정교수로 임용된 적 없는 학과들도 굉장히 많다. 국회라는 조직을 보자. 역대 최대 여성의원 당선이라 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교회라는 조직을 보자.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성 사제는 없다”고 단언했고, 나를 포함해 그를 진보적이라 평가하고 따르던 많은 이들을 상심하게 했다. 교회의 지식을 수천 년 간 만들어오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쳐온 거대한 사제 공동체의 성비를 보면 남성으로 간주되는 이들이 100%를 차지한다. 그런 교회가 임신중절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한 달쯤 전에 <페미니스트 창당도전기>라는 스웨덴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고 대화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다. 거기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조혜영 프로그래머에게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다. 스웨덴 영화진흥원 여성위원장의 노력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성평등한 영화계를 만들기 위한 목표를 뚜렷이 하고 위원장에 출마해 당선된 후 가장 먼저 감독, 주연배우, 촬영감독, 제작자, 음악감독 등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여성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집요하게 모니터링하고 여성이 영화계에 많이 없는 건 재능의 문제라는 공격에도 명료한 답변들을 제공했다. 이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작에 세 편의 스웨덴 영화가 진출했고 수상했는데, 모두 여성 감독이 만든 여성이 주연인 영화였다고 한다. 여성들이 재능이 없어 좋은 영화를 만들지 못한 거라던 비아냥에 대한 확실한 반박이다.

최근 SNS상의 ‘#OO계_내_성폭력’ 폭로를 통해 여성들이 남성중심적인 관(거의 모든 사회 영역=일상) 안에 들어갔을 때 성폭력으로부터 생존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드러나고 있다. 가해자들은 어쩔 다들 그렇게 ‘몰랐다’고 얘기하는지. 그것은 곧 그들이 ‘몰라도 되는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드러낸다. 여성혐오나, 혹은 사적 관계에서의 보복을 공적 영역에서 마치 객관적인 피드백인 듯 포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 불합리함과 싸우는 데 쓰던 에너지를 작품을 만드는 데 (혹은 지식 생산을 하는 데) 온전히 쏟을 수만 있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좋은 작품들이 나올까. 하딩은 지적한다. “여성들은 만일 부정적인 문화적 제재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종용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항상 고려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도된 것으로 그들의 생각과 판단 사이에 더 큰 단절이 생기게 만든다.” 이렇다는 것을 알게만 되더라도 과도한 자기검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고 용기 내보는 것이다. 똑같은 행위를 남성이 했다면 하고 가정해보는 자체가 슬프지만 말이다.

공동체 내 성폭력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에 주로 감정을 이입하고, 더 고통스럽게 성찰하며 해결에 필요한 일을 맡는 것도 대부분 여성들이다. 성폭력 사건 해결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리 둘 수 있는 이 누구인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남성연대 바깥에서 어떤 보상없이도 서로 위로하는 이 누구인가. 모든 여성 활동가들이 성폭력 사건 해결과 남성 가해자 설득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여러 생각이 든다. 그 현실 속에 그어지는 명확한 전선과 이 상황이 단시간에 변하지 않으리란 느낌이 섞이며 어쩔 수 없이 슬프다. 많은 이들이 이런 일상의 싸움을 인지조차 못 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렇기에 조직의 리더가 되려는 나에게 피 흘리는 전장에서 선두에 설 수 있겠냐 묻는 것인데, 이 질문을 던진 남성에게 피는 이미 내가 십수년 간 매달 일주일씩 흘려왔다고 답하고 싶다.

끝으로 한 번 더, 내가 지나갔다 다시 돌아오게 된 하딩의 문장을 인용해본다. “사회적 관계를 지탱하는 제도와 양성 간의 사회적 관계의 감추어진 면들은 그것들을 변화시키려는 투쟁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어쨌건 투쟁을 시작하자. 시작하고 나면 훨씬 많이 이해될 것이다. 나 역시 항상 젠더폭력을 포함해 위계폭력의 가해자임을 잊지 말고 말과 행동, 생각과 습관을 성찰할 것을 되새긴다. 신념을 따르되, 욕심은 내려놓을 것.

기도를 하게 된다.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감당할 수 있기를, 시간이 충분하기를 청하며.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엇인지 묻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1 샌드라 하딩,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조주현 역, 경기도 파주: 나남출판사, 2009. 이 글에서 인용한 샌드라 하딩의 문장들은 모두 이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2 김현미, ‘한국의 페미니즘과 세대—어떻게 접속하고, 어떻게 결별할까?’ 강의, 여성민우회 주최, 2016년 4월 28일.

3 캐롤 페이트만, 『분배의 재구성—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중 ‘시민권의 민주화 : 기본소득의 장점’, 서울: 나눔의 집, 2010.

